교회 소식

1. 환영합니다

- · 언약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역자나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우리교회는 어린 아가들부터 온가족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소란할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가급적 앞좌석에 앉아주시면, 좀 더 정숙한 분위기에서 예배드리실 수 있습니다.

2. 8월, <전도대상자>를 정하는 달

8월은 <전도대상자>를 정하는 달입니다.

3. 기타 안내

온라인

헌금

- ① 내일부터 아침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주부터는 수요예배도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 ② 오늘(6일)과 이번 토요일(12일, 일일성경학교) 그리고 다음 주일(13일),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있습니다.
- ③ 오늘과 다음주일은 여름성경학교로 인해 오후예배를 쉽니다.
- ④ 7월 재정보고를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⑤ 8월 필독서를 판매합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게리 채프먼, 생명의 말씀사) 책값은 8천원입니다.
- ⑥ 오늘부터 약 한달동안 차량대수 조사를 합니다. 아파트에 주차하신 분은 예배 후 나가실 때, 차량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⑦ 오늘 오후 예배 후, 청년부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 **일반헌금** : 국민은행 387-21-0060-940 (예금주/조호진)

신한은행 308-12-390429 (예금주/조호진)

100-032-008667(예금주/언약교회) 우리은행 1005-901-708982 (예금주/언약교회)

■ 예배당매입헌금 : 국민은행 830502-04-176405 (예금주/조호진)

 봉사 안내
 설거지
 이철영, 한상우, 박혜정
 민주, 김규희, 김미라, 최재원

 오후통독
 조가람(마태복음 20-21장)
 이은수(마태복음 22-23장)

Green Hotel Green Hotel Green Hotel Green Hotel Hotel Green Hotel Hotel

COVENANT COMMUNITY CHURCH

섬기는이 목사-조호진, 신상윤 / 전도사-김숙영 서울 관악구 인헌동 181-6 현대아파트상가 (3층) ☎ 02-875-7760 http://www.unyak.org <**제19-32호 / 2017년 8월6일**>

말씀이 깊고 풍성한 교회 온 성도가 <mark>믿음과 섬김으로 "제자삼는 제자"</mark>가 되는 교회



(가난한 과부의 헌금-산소마을)

주일	유·초등부	오후 1시30분	
	중·고등부	오전9시30분	
	주일예배	오전11시 // 오후1시30분	
주중	<아침예배>	오전9시30분(월-금)	
	수요예배	저녁7시30분	

주일 예배 순서

인도 : 조호진 목사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일어서서
사도신경일어서서
회개와 감사 기도일어서서
찬양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다함께
대표기도 민 주 자매
성경 봉독 말라기 1장 6-14절 말씀 이경환 형제
말씀『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조호진 목사
결단의 기도다함께
성도의 교제다함께
광고인도자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일어서서
축도 조호진 목사

-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 예배 후에는 점심 식사 및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od uli		다음 주(8/13)	2주 후(8/20)
예배 위원	대표 기도	정영경 집사	임용원 자매
	성경 봉독	김충현 형제	한상우 형제

성경 본문 (개역개정판-말라기 1장 6-14절 말씀)

말라기 1장 6-14절 말씀

하나님의 선포

06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제사장들의 반문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07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대답

08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 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09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 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 1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 12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 13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포

14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